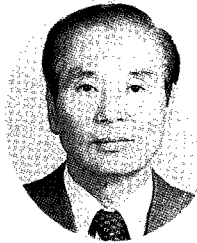


두 번의 創立總會 끝에 出帆



김종주
(주)무디코리아 회장

1960년대를 거쳐 1970년까지는 원자력산업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의학과 농업에의 이용과 비파괴검사를 비롯한 공업에의 이용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日本에서는 원자력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자력과 관련된 기계, 기구의 제조업도 상당히 활발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업체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협회에 해당하는 원자력산업회가 이들 나라에 설립되어 원자력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에너지자원이 매우 빈약하여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불가피성을 한국전력공사

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인정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되게 되었다.

그동안 몇차례 관련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원자력산업회의 설립에 뜻을 모았으나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1970년 12월3일에는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상공부 장관께서 축사를 했고, 정관이 심의되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선임을 위하여 전형의원 5명이 지명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장 오원선(국회의원, 전 원자력위원장), 이사장 김일환(한국전력공사 사장), 부회장 정주영(현대건설 사장), 이양구(동양시멘트 사

장), 최태섭(한국유리 사장), 박익수(원자력위원), 주창균(일신산업 사장), 이상수(원자력청장), 최상업(서강대 교수) 등이다.

이렇게 원산 설립의 골격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세월만 흘러갔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별로 할 일이 없었고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밀고나갈 중심이 없었다. 한국전력공사 이외는 모두 소극적인 참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착공되면서 한전 외에도 현대건설(주), 동아건설산업(주)를 비롯하여 제작업체 중에도 원자력산업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표시한 업체 수가 많아졌다.

드디어 1972년 3월17일 발기인 총회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사업목적을 보면 「... 우리는 원자력을 산업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형식적인 연구에서 보람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산업계와의 깊은 유대를 가지고 이를 계몽 보급하여 미래에 도래할 원자력시대에 대비함은 물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산업계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여 국가시책에 이바지하고자 금반 사단법인으로 발족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다.

이어서 1972년 10월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의10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다시 가졌다. 여기서 발기인총회까지의 경과보고

제5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THE 5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와 정관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사선임도 있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 오원선, 이사 박익수, 이사 김중주, 이사 김동일, 이사 김지삼, 이사 이대희, 이사 유병호, 이사 김득모, 이사 김석주, 이사 홍윤후, 이사 김철중, 이사 이성희, 이사 김상수 등이었고 감사는 이동집으로 결정됐다. 다시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회장에 오원선氏가 선출되었으며 이러한 창립총회내용이 정식으로 등기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적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큰 업적을 세우지는 못하였으나 주로 日本原子力産業會議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1976년에는 日本原子力産業 시찰단을 대한중기 김연규 사장을 단장으로 하여 10여명 파견하여 日本原子力研究所, 원자력발전소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 등을 시찰하였다. 필자도 부단장격으로 참가했는데 日本原子

力研究所,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 등에서는 우리 일행을 환영하기 위하여 입구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펄럭이고 있어 과거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였을 때와는 또 다른 긍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또 1979년 10월에는 제1회 韓日原子力産業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으며, 이후 東京과 서울로 번갈아가며 매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최되고 있어 기술협력과 교류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80년에는 한국전력공사 김영준 사장께서 원산 회장으로 취임하여 재정적으로 더욱 충실해지고 사업도 활발해졌다. 1983년 9월에는 김영준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캐나다 원자력산업 시찰단을 보냈는데 이때도 필자는 부단장격으로 동행하였다. 몇군데 원자력발전소와 AECL 산하 연구소와 대표적인 제작소들도 둘러 보았다. 이때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PBNC) 제4차 회의도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어

필자도 이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다음 제5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회의준비 등 여러가지를 배우고 왔다.

1985년 5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와 미국원자력학회 공동주최로 제5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를 서울에서 가졌다. 이 회의의 개회식에는 무역협회 회장 남덕우氏, 김성진 과기처 장관, 박정기 대회장, 조셉 헨드리 미국원자력학회장, 제임스 도넬리 캐나다원자력공사 총재 등이 특별강연을 하여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다. 제6차 회의의 주최국으로 내정된 中國 대표도 臺灣 대표와 함께 참석하는 전례를 만들었기도 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균형있는 개발이 불가피하여 고리 2호기를 비롯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활

目録

一 置時計 一個

創立二十周年記念品として
贈呈します

一九九二年十月二十日

日本原子力産業會議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殿

발히 이루어져 현재 9기가 운전중이며 5기가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설 내지 증설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의하여 건설되는데도 일부 국민간에는 반원자력, 반핵운동도 점차 거세져서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 없이는 원전 건설사업을 계속 활발히 밀고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국민홍보에 많은 힘을 쏟았으며 또 큰 성과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자는 1958년 유네스코(UNESCO) 장학금으로 원자력기술 연수차 영국으로 떠났다. 마침 그해 9월에 스위스 슈네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 FOR PEACE)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가 열렸고 英國으로 가는 길에 그 회의에도 참석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영국 및 소련서 5만 내지 7만kW의 첫 원자력발전소를 가졌을 뿐이었다. 필자

는 영국 콜더홀(CALDER HALL) 원자력발전소에서는 3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매일 두 시간의 강의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운전근무를 하며 훈련을 받았다. 그 당시 미국, 영국, 소련 모두가 평화적 이용만을 강조하고 전력생산 만이 목적인다고 하였으나 실은 영국과 소련의 경우는 전력생산보다도 군사용 플루토늄(Pu)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았다. 미국은 이미 농축우라늄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술도 갖고 있었으므로 플루토늄을 생산할 필요가 없었다.

콜더홀의 강의시간에 『이 발전소의 종업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하고 질문하였더니 강사는 『종업원 수를 말할 수는 없으나 꼭 알고 싶으면 아침 출근시간에 정문 앞에서 들어가는 통근버스 수를 세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했다. 또 『이 발전소의 주목적이 전력생산입니까? 플루토늄 생산입니까?』하고 질문하였더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싶으면 이 발전소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몇개월동안 계속 운전하고 정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했다. 그후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플루토늄 생산이 주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 처음 원자력사업을 한 목적이 군사용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된다. 영국에서 연수를 받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원자력발전소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몹시 부러워 했었는데 그후 이승만 대통령의 영단으로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발족하고 젊은 과학기술자가 다수 미국과 영국으로 보내져 연수를 받았으며 역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 대국의 하나로 부상한 것을 볼 때 감개가 무량하다.■